

<엄마만의 치료법>



Certificate Programme in Advanced Applied Korean 3

Law Kwan Ling

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아프곤 했어요. 큰 병이나 작은 병도 걸린 적이 많고 거의 매달 아팠었어요. 그 많은 아픈 경험 중에서 대부분은 가벼운 감기나 몸살이었어요.

그런데 우리 엄마는 제가 열이 났을 때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보통 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덜 아프게 하셨어요. 열이 날 때는 항상 몸이 뜨거워지잖아요. 이럴 때 엄마는 저에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: “땀을 제대로 내야 열이 없어질 거다”. 이렇게 해서 자는 사이에 한 운동을 한 것처럼 땀이 나서 옷이랑 이불이 다 젖어 버릴 정도였어요. 자는 동안 많이 답답했지만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몸이 정말로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. 열도 안 나고 몸살이나 감기도 많이 좋아졌어요. 뿐만 아니라 기운도 회복 되고 안색도 돌아왔어요.

지금 다 커서도 가끔 열이 날 때 이 방법을 따라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엄마 말씀대로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. 이불을 덮어 주시던 엄마의 손길도 생각이 나서 어릴 적 아팠던 기억은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추억이 되었어요.

《只屬於媽媽的治療法》

我從小就經常身體不太好，不論是大大小小的病痛，幾乎每個月都總會生病，當中大多數都是輕微的感冒或身體不適。

當我發燒的時候，我媽媽並不會第一時間帶我去醫院，反而通常讓我在家休息，並以她獨有的方法去減輕我的不適。例如發燒時，身體免不了會變得很熱，令人非常不適。這時候，媽媽會給我蓋上厚厚的被子，並說：“要出汗身體才會退熱。”因此，我在睡覺時出了很多汗，令衣服和被子都沾濕了。雖然睡覺時感覺很納悶很不舒服，但當我第二天醒來時，不僅已經退了燒，而且身體的酸痛和感冒的徵狀也改善了很多，沒有了前一天的不適感。不僅如此，精神和身體狀態也遂漸恢復了。

現在的我長大了，發燒時仍然會用這方法去退燒。所以，聽媽媽的話是不會錯的。這也不禁令我想起為我蓋上被子的媽媽，童年的痛苦回憶儼然變成了溫暖的回憶。